

정읍시, 도시농업 관리사 26명 배출

농업기술센터 양성과정 수료식 4월부터 21회 92시간 걸쳐 교육 도시 텃밭·정원문화 활성화 기대

정읍시가 도시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과 도시농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26명의 도시농업 예비전문 강사를 배출했다.

정읍시는 최근 농업기술센터에서 '2021년도 도시농업 관리사 양성과정' 수료식을 열고, 도시농업 관련 전문지식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도시농업 관리사 양성 교육은 도시 텃밭·정원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농업을 통한 지역사회의 복지 구현을 선도하는 도시농업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지난 4월6일부터 이날까지 총 21회, 9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도시농업 기반 조성 및 토양의 이해, 작물 생육과 환경, 텃밭 정원 만들기, 병해충 관리, 치유농업의 이해, 친환경 농업 등이다.

이론과 실습, 현장 견학을 병행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생 간 일정한 간격을 유



유진섭(가운데) 정읍시장과 도시농업 관리사 양성과정 교육생들이 지난 23일 수료식을 갖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했다.

도시농업 관리사 양성 교육을 수료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발급하는 '도시농업 관리사' 국가자격증 취득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게 된다.

향후 도시농업 관리사 자격 취득 시 시민들에게 도시농업 관련 교육과 해설, 지도, 기술 보급 등 도

시농업 전문 강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품질 도시농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농업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라며 "도시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과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성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 판소리 집대성 신재효 선생 두번째 자료총서 발간

판소리 사설 10여종 총정리

박타령·적벽가·변강쇠 3권도

고창군이 판소리 여섯바탕을 집대성한 동리 신재효 선생에 대한 두 번째 자료총서(사진)를 발간했다. 고창군 판소리박물관은 이번 자료총서가 신재효 선생의 판소리 사설 10여종을 총정리하고, 고창 판소리와 동리 신재효 연구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리 신재효 자료총서는 2019년 시작돼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가 남긴 판소리 사설, 가사, 고문서, 유적·유물, 전기·역사자료 등을 집대성해 책으로 엮는 작업이며, 영인본(원본을 사진으로 찍어서 복제한 책) 등 총 18권으로 계획됐다.



이번 발간된 자료는 고창군과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와 함께 작업했으며 사설 영인본에 이은 '박타령', '적벽가', '변강쇠' 등 3권이다.

지난해 발간한 첫 번째 자료총서에서는 '춘향가', '심청가', '토벌가' 등이 실렸다.

특히 이번 자료총서는 동리 신재효 사설인 가람본, 신씨가장본, 성두본, 새터본, 교수본 등 10여

종을 총망라해 원본을 영인하고 해제(현대어로 해설)해 출간했다.

판소리 사설 이본(異本)에 대한 해제를 수록해 판소리 사설 이본간의 차이와 특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판소리박물관은 발간한 판소리 여섯바탕 사설영인본을 바탕으로 신재효 판소리사설 필사(손글씨) 체험, 신재효 판소리 사설 강독 등 판소리 사설 활용사업을 벌여 판소리 대중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계에 소개되지 않은 자료들을 포함해 조선후기 판소리 문화를 재가공하고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자료를 꾸준히 소개하겠다"며 "사업이 판소리의 발전과 한국 판소리의 현대화 및 세계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순창군 카페·음식점 문화예술강좌 돕는다

희망업소 모집 20만원씩 지원

순창군이 지역의 카페나 음식점 등 대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문화예술강좌를 열 수 있도록 돕는다. '생활속 문화예술 작은강좌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소를 9월2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소규모 문화예술 강좌 운영이 가능한 관내 음식점, 카페 등 모든 업종이다. 회당 15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곳이면 된다.

참여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강사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해 회당 20만원이 지원된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돼 주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자 지역에서 소규모로 문화예술강좌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최근 문화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 상황에서 지역 예술인의 경제적 소득 창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좌는 미술, 음악, 문학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는다.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적 활동이면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는 순창군청 문화관광과(063-650-1625)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군민들이 문화를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업종에 관계 없이 폭넓은 시각으로 사업을 추진하되만큼 문화에 관심 있는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정영민 기자 jyg@kwangju.co.kr

익산시 지역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전액 지원

6000여명에 30억원

익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익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

익산시는 카드수수료 전액을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중 카드수수료 지원을 신청한 6000여 명에게 30억원을 오는 27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가격은 전년도 매출 3억원 이하이며,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 유흥·사행성 업종과 다단계업체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익산시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전액 지원에 나선 것은 다른 지역에서 카드수수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통상 50만원 한도 지원으로, 카드수수료가 50만 원이 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앞서 익산시는 2020년 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7500여명의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전액을 지급했다. 지급방식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50만원 초과금액을 익산사랑상품권인 익산다리로움 카드로 지급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국제청과 협업체에서 서류 간소화와 정확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했다"며 "이번 카드수수료 지원이 코로나19 확산세로 힘든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남원시, 치매노인 '행복 GPS' 무상보급

보호자 위치정보 실시간 확인 앱

남원시가 치매노인의 실종을 막기 위해 위성항법장치(GPS)를 무상 보급한다.

남원시치매안심센터는 치매노인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배회 또는 실종의 경험이 있는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배회감지기 '행복 GPS'를 무상 보급한다.

스마트워치 형식의 배회감지기 '행복 GPS'는 모바일 앱을 통해 대상자의 위치정보를 보호자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대상자가 안전구역을 진입·이탈할 경우, 보호자에게 알리는 기능이 탑재돼 있으며 응급상황 시 대상자가 'SOS 호출' 버튼을 누를 때에도 보호자에게 이를 알려준다.

지급대상자는 총 12명이며 신청자 중 고위험군을 우선 선정해 보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24일부터 27일까지이며 남원시치매안심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남원시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배회감지기를 보급해 실종을 예방하고, 치매환자 실종 시 신속



남원시가 치매노인의 안전을 위해 무상보급하는 배회감지기 '행복 GPS'.

한 조기발견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군산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시비 지원 자부담 10%로 경감

군산시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고, 농가의 소득 보전 및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하고 나섰다.

사업대상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품목은 총 52종으로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하반기 가입 가능한 품목은 보리·밀(10월12일~11월27일), 양파(10월26일~11월27일), 자두·매실(11월5일~11월27일) 등이 있다.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이날 현재까지

3441농가, 면적은 7381ha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농가는 160%, 면적은 150% 증가했다.

김선주 군산시 먹거리정책과장은 "태풍과 장마, 폭염 등 잦은 자연재해가 발생해 보험의 필요성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기준을 자부담 20%에서 시비를 추가 지원해 10%로 경감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마다 늘어가는 기상이변에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영농활동의 기본으로 안정적인 농업과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농가들의 적극적 가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